

[보도자료] '로맨스의 절댓값' “나 수학 좋아해!” 웃음&액션&감동 까지 절댓값! 드디어 말해버린 속마음에 기대감 수직 상승!

2026. 5. 18.











반전 전개가 예고됐던 쿠팡플레이 <로맨스의 절댓값> 11-12화가 한층 더 풍성해진 웃음과 몽클한 감동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감독: 이태곤, 김준형 | 출연: 김향기, 차학연, 김재현, 손정혁, 김동규 | 제공: 쿠팡플레이 | 제작: 풍년전파상, 보더리스필름 | 공동제작: Mediacorp)은 **꽃미남 선생님들을 주인공으로 로맨스 소설을 쓰던 여고생이 현실에서 그들과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하며, 파란만장한 학교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하이틴 코미디 시리즈.**

예상치 못한 새 인물, '나들이'(정다운)가 '가우수'(차학연)의 여자친구라고 단단히 오해해버린 '여의주'(김향기). '우수'가 미국으로 떠나버릴까 걱정하며 방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소설 한 줄 써내려가지 못하는 '의주'의 모습은 11화 시작부터 시청자들에게 귀여운 웃음을 안겼다.

심란한 마음도 잠시, 연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 '최지아'(윤혜림)를 찾아 나선 '의주'는 그가 나쁜 어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며 긴장감을 높였다. 이때 '우수'가 영화처럼 등장해 그 빛을 모두 갚으며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 받지만, 사채업자들은 이를 어기고 '지아'를 납치한다. 이 소식을 들은 '우수'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고, '의주'의 제보로 '윤동주'(김동규), '정기전'(손정혁), '노다주'(김재현)까지 도착하며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다.

이어진 12화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윤동주'의 반전 활약이 폭발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화려한 액션을 폭발시킨 그의 변신은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특히 "애들 좀 봐줘"라고 율조리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압도한 뒤 악당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장면과 그 과정에서 살짝 드러난 타투는 그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며 역대급 '입덕' 구간을 완성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정리된 뒤, '의주'와 '고야'의 우정 모먼트가 몽클한 여운을 더했다. '고야'와의 변하지 않을 우정을 다시금 느낀 '의주'는 마침내 "나 수학 좋아해"라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동주'의 폭발 매력을 속사포처럼 쏟아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우수'를 비롯한 꽃미남 선생님들의 과거 인연이 처음으로 밝혀지며 이들이 어떻게 우정을 다지게 되었는지 공개돼 이야기에 깊이를 더했다.

'의주'의 상상력 또한 더욱 기발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의주'는 특유의 빨간 안경을 걸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소설 <우린 친구였어>의 다음화를 이어간다. 으스스한 골목, 위기에 처한 학생을 구해주는 에피소드에서 '최윤'(김동규)의 활약에 '한재민'(김재현)이 반해버린 것 같은 뉘앙스를 남겨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기대감을 더한다.

그리고 '의주'는 고등학생 인생 최대의 고민을 마주한다. '고야'의 조언에 따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우수'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은 것. 과연 '의주'가 '우수'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을지 설렘과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로맨스의 절댓값>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